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 "첫 무등기는 누구 품에"

## 제1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18일 개막

### 천왕·지왕·인왕 리그 51개 팀

### 11월16일까지 매 일요일 경기

사회인 야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제1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의 여정이 18일 시작된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고 기아자동차와 KIA 타이거즈가 후원하는 이번 사회인 야구대회는 오는 18일 오전 9시30분 광주 OB구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대단원에 막이 오른다.

천왕·지왕·인왕 3개 리그로 나눠 열리는 대회는 오는 11월16일까지 매주 일요일 무등경기장 등지에서 펼쳐지며, 각 리그에 참가하는 51개팀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결을 갖고 초대 우승팀 자리에 도전한다.

지난 1일 광주시 북구 현대종합상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진 추첨을 통해 첫 승을 놓고 격돌한 라이벌들이 결정되면서 대회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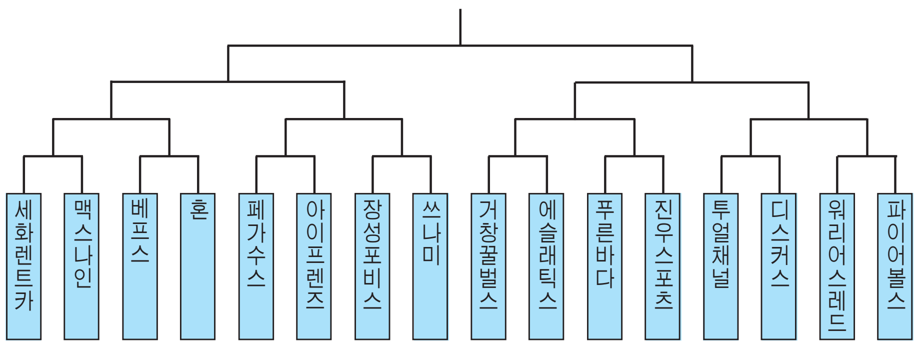
천왕리그는 선수 출신의 등록에 제한이 없으며 투·포수를 제외한 포지션에 2명이 출전할 수 있어 수준높은 경기를 예고하고 있다. 지왕리그와 인왕리그의 경우 팀워크를 바탕으로 조직력의 야구를 준비하고 있다.

각 토너먼트 우승팀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주어지며 준우승팀과 공동 3위팀에게는 각각 상금 50만원과 야구공 1타가 수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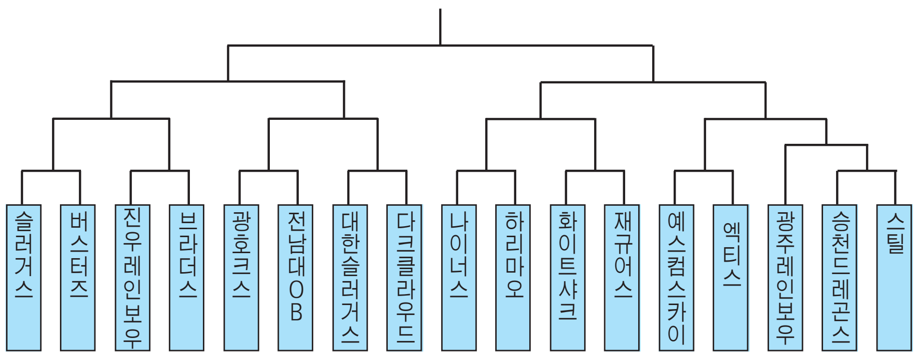
우승팀 감독과 최우수선수에게는 트로피와 10만원의 상품권, 우수선수에게는 트로피와 5만원 상품권이 증정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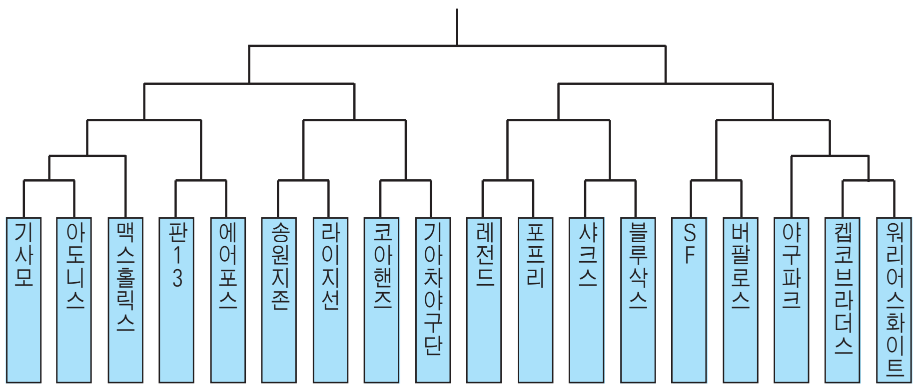
천왕 토너먼트 대진표




지왕 토너먼트 대진표




인왕 토너먼트 대진표



**조추첨부터 열기** 지난 1일 광주시 북구 현대종합상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무등기 광주 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대진추첨에서 각 리그 대표자들이 추첨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반갑다 이범호"

## 손영민과 함께 1군 복귀 임박 … KIA 전력 재정비 2위 탈환 나서

### 8일 삼성과 홈경기

### 주말 두산과 3연전

전력을 재정비한 호랑이 군단이 2위 탈환에 나선다.

KIA는 지난 1일 사직원정을 다녀온 이후 잠정 휴업상태다. 비를 피해가면서 8개 구단 중 가장 많은 일정을 소화하느라 잔여 경기 일정에 공백이 생긴 탓이다.

오는 8일 삼성과의 홈경기까지 일정이 없는 KIA는 무등경기장에서 훈련을 하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순위싸움의 승부처가 됐던 8월, KIA는 주전들의 줄부상 계속된 강행군 속에 3위까지 내려앉았다. 넥센과 롯데와 두 경기만 치르면 됐던 지난주에는 뼈아픈 2패를 당하면서 2위 싸움에 대한 부담감도 커졌다.

모처럼 한숨 고른 KIA는 8일 삼성과의 홈경기 이후 잠실 원정길에 올라 두산과의 주말 3연전을 치른다. 아직 끝나지 않은 2위 싸움이 KIA를 기다리고 있다.

김선빈·김상현·최희섭 등 부상병들이 속속 복귀한 가운데 타선과 불펜의 핵심 이범호와 손영민의 1군 복귀도 임박한 만큼 KIA는 2위 싸움의 마지막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각오다.

지난 7일 SK와의 경기에서 허벅지 근육 파열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이범호는 1군 선수단과 함께 훈련을 하며 복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

이범호

만큼 지명타자의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신 '해결사로' 통했던 이범호가 빠진 후 KIA 순위도 함께 내려앉았다. 타선의 침체 속에 김선빈이 3번 타자에 투입되는 등 타선의 변칙 운용까지 전개됐지만 이범호의 공백은 컸다. 이범호가 빠진 이후 KIA는 7승 13패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불펜의 궂은일을 도맡아 했던 손영민의 빈자리도 아쉬웠다.

손영민은 지난 18일 어깨 통증으로 자리를 비우기 전까지 51경기에 나와 82이닝을 던지며 7승5패5세이브10홀드를 기록했다.

불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손영민을 대신해 김희걸이 그 역할을 대신했지만 선발과 불펜의 동반 침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희걸은 손영민이 빠진 뒤 치러진 12경기 중 7경기에 등판해 10과 3분의 2이닝을 막느라 고전했다.

손영민의 복귀로 마운드도 한층 여유를 되찾게 될 전망이다.

팀의 2위 싸움과 함께 개인 기록 행진도 이어진다. 위기의 8월, 5개의 2루타를 포함 20개의 안타를 때려내며 0.313의 타율을 기록한 백전노장 이종범은 앞으로 1경기에 더 이름을 올리게 되면 1700경기 출장의 위업을 달성하게 된다. 또 두 차례 홈을 더 밟으면 통산 세 번째 1100득점의 주인공이 된다.

부상전 타점 1위를 달리던 이범호의 타점왕 자리는 멀어졌지만, 이범호는 앞으로 4개의 안타를 추가하면 7년 연속 세자릿수 안타의 주인공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2011 프로야구 중간순위 (9월 5일 현재)

| | 팀 | 경기수 | 승 | 패 | 무 | 승률 | 게임차 | 연속 |
|---|---|---|---|---|---|---|---|---|
| 1 | 삼성 | 109 | 64 | 43 | 2 | 0.598 | - | 1패 |
| 2 | 롯데 | 114 | 61 | 50 | 3 | 0.550 | 5.0 | 1패 |
| 3 | KIA | 119 | 64 | 55 | 0 | 0.538 | 6.0 | 2패 |
| 4 | SK | 107 | 56 | 51 | 0 | 0.523 | 8.0 | 2패 |
| 5 | LG | 110 | 53 | 56 | 1 | 0.486 | 12.0 | 1승 |
| 6 | 두산 | 106 | 47 | 57 | 2 | 0.452 | 15.5 | 3승 |
| 7 | 한화 | 110 | 48 | 60 | 2 | 0.444 | 16.5 | 3승 |
| 8 | 넥센 | 107 | 43 | 64 | 0 | 0.402 | 21.0 | 4패 |

프로야구 30년 타이거즈 30년

### 〈43〉 2002 시즌 삼성 우승

## '김응용 효과' 21년 만에 恨 풀다

2002시즌은 역사적인 한일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등으로 프로야구의 흥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하는 염려 속에 개막되었다. 결과는 절묘한 조화를 이뤄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스포츠 마니아로 응집시키는데 성공했다.

그 유명한 '대~ 한 민국'은 4강 기적을 연출하였다. 아시안 게임 야구에서는 대만을 4-3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획득하며 스포츠를 문화로 정착시키는데 성공했다.

2002시즌 삼성 라이온즈는 고진감래로 21년의 '무관의 제왕'의 설움에서 벗어나며 '제일주의'의 그룹 이미지를 한껏 고양시키는데 성공했다. 삼성은 최상의 지원과 우수한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유난히 큰 경기에 약한 면모를 보이며 번번이 고지 점령에 실패하며 분루를 삼켜야만 했었는데 2002년은 그 숙원을 풀어낸 해가 되었다.

삼성은 1985년 전·후기 통합우승을 차지한 적은 있지만 '진정한 챔피언'으로 인정하는 한국시리즈를 통한 우승은 이루지 못했다. 20년 동안 5위 이하는 단 3회만 기록했고, 17회나 4강에 들어 7회나 '챔피언'에 도전했으나 한국시리즈에서는 모두 폐퇴하는 아쉬움을 남긴바 있다.

2002시즌 삼성의 우승은 '사자의 파란 피'의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해 영입했던 '호랑이의 붉은 피'의 소프트웨어인 임창용·조계현·이강철 등과 '김응용'의 효과가 진가를 발휘해 얻어진 산물이었다. 그리고 절묘하게 LG에서 FA로 풀린 양준혁과 용병 최고의 내야수로 꼽히는 브리또와 교체 용병 엘비라의 가세와 '명장' 김응용감독의 명조련술이 나약했던 사자를 백수의 제왕으로 변모시켜 놓았던 것이다.

2002시즌 준플레이오프전서는 4위인 LG가 3위인 현대에게 2전 전승을 거두었고, 그 여세를 몰아 플레이오프전서는 2위 KIA를 3승2패로 제압했다.

한국시리즈 1차전서는 삼성이 용병 엘비라의 호투와 강동우·브리또의 홈런포로 4-1승을 거두었다. 2차전서는 역으로 삼성이 용병 만자니오의 호투에 눌린데다 조인성에게 홈런포를 맞고 1-3으로 패했다. 3차전서는 삼성이 배영수의 구원역투와 강동우와 브리또의 각 3안타의 맹타로 6-0 완승을 거두었다.

4차전서는 노장진과 이상훈의 구원 대결 끝에 마해영이 4안타3타점으로 활약한 삼성이 4-3으로 신승을 거두었다. 5차전서는 삼성 마해영이 2개의 홈런포함 5타점으로 맹타를 휘둘렀으나 7-8 케네디 스코어로 석패했다.

시리즈의 고별전이 된 6차전 6-9로 패색이 짙던 9회말, LG의 특급 마무리 이상훈을 상대로 이승엽이 동점홈런 그리고 최원호를 상대로 마해영이 끝내기 홈런을 터뜨려 10-9로 대역전승을 거둔 삼성이 21년 만에 감격의 첫 우승을 차지했다.

김 재 요
〈조선이공대 교수·
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GRAND OPEN
유·스퀘어 사우나 24시
위 치 :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주차안내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